
신 바젤(Basel II) 협약 시행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및 대응방안

2005. 3. 25

KOTRA 해외조사팀

- 목 차 -

[요약]	i
I. 신 바젤(Basel II)협약 내용과 영향	1
1. 바젤 II 협약 주요 내용	1
2. 협약 시행에 따른 영향 및 파급 효과	5
3. 중소기업의 대응책	9
II. 독일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 실태 및 Basel II 대응전략	11
1. 독일 중소기업 개황	11
2.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13
3. Basel II에 대한 독일 중소기업들의 대응전략	17
III.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의 시사점	22

1. 신바젤(Basel II)협약 내용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01년 1월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 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자기자본협약(Basel II) 초안을 발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 Basel II의 개요

- Basel II는 기존의 협약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및 시장 규율(Pillar III)을 추가한 총 3개 부문(pillars)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최저자기자본규제(minimum capital requirement) : 신용(credit), 시장 및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를 감안한 위험가중 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적립
- 감독당국의 점검(prudential supervisory review) :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평가(새로 추가된 사항)
-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 :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새로 추가된 사항)

2. 협약 시행에 따른 영향 및 파급 효과

☐ 유럽 및 전세계 은행제도에 막대한 영향 미칠 전망

(1) 은행간 거래에 자기자본 요구 가중

-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2) 노출된 위험 가중치에 따른 자기자본 요구

- 노출된 위험가중치의 차이로 은행의 신용공여 대상에 따라 자기자본 요구가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수 있음

(3) 심층 구조조정 촉발

- 규모가 작은 은행은 첨단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경제적, 인력적 여력이 작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임

(4) 위험가중치에 따른 신용공여 구조 변화

- 기업과 개도국들이 장기 융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유럽에서는 신탁약의 시행에 앞서 신용시장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5) 경기변동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

- 경기하강 국면에서 은행 수익성의 하락과 동시에 리스크 증대로 은행들은 바젤 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용공여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경기 하락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재함

□ 유럽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은행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상쇄되는 셈
-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높지만, 반면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소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요구가 낮은 것임
- 중소기업 거래 경험이 많은 은행들은 건전한 고객 선정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고 예상되는 손실을 이윤으로 커버할 수 있음

3. 독일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 실태 및 Basel II 대응전략

□ 구조조정 실태

(1) 생산기지 해외이전

- 독일 중소기업은 오래 전부터 세계화에 따른 외국기업의 독일시장 진출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 악화와 금융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출 조건 엄격화에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음

(2) R&D 활성화

- 독일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들과 연구소간의 협력 활성화할 필요

(3) 벤처 캐피탈에 배타적이던 중소기업의 의식변화

- 점점 많은 중소기업들은 벤처 자본, 특히 영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메자닌형 자금 조달(Mezzanine-financing) 방식 등 간접금융방법을 취하고 있음

□ 대응전략

- 기업평가 소프트웨어 구입하여 평가 실시
- 온라인의 기업평가테스트 사용
- 은행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사용
- 정기적인 시장 및 경쟁 현황 분석
- 장기적인 기업전략 구축
- 자본비율 증대
-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 (벤처 캐피탈, 메자닌형 자금조달)
-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작성부서 개선
- 기업 구조 및 작업경과 개선
- 컨트롤시스템 도입 또는 개선
- 회계부서 설립 또는 개선
-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 (벤처 캐피탈, 메자닌형 자금조달, 팩토링)

4. 우리 중소기업에의 시사점

☐ 뼈깍는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 개선해야

- 신바젤협약 발효된 후 중소기업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체질 바꿈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해야

☐ 신 바젤 협약 시행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정책적 배려

- 신 바젤 협약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은행 및 금융기관이 정부정책, 은행의 대처방법 및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유도해야

☐ 우리 중소기업 신용도 및 자기자본비율 개선할 필요

- 우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은행차입 외의 자금 조달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신용도 및 자기자본비율 개선이 필수

☐ 효율적인 경영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 효율적인 경영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며 은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자금조달 방법 다변화를 통하여 은행 부채비율의 감소를 추진해야 함

☐ 자금조달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권 전체의 위기확산 등을 방지

-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정부, 기업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권 및 기업 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사전에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Basel II 협약 시행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I. 신바젤(Basel II)협약 내용과 영향

1. 바젤 II 협약 주요 내용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2001년 1월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 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자기자본협약(Basel II) 초안을 발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 신용 공여에 내재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기자본 구축을 통한 은행제도의 안전성 제고

[도입 배경]

- 1) 전 BIS자기자본보유제도의 위험가중치 적용방식이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별 리스크수준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one-size-fits-all)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
- 2) 금융기관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방식이 현저하게 발전하여 Basel I 을 활용하여 자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3) 세계 금융산업의 M&A를 통해서 대형화 및 집중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은행들에게 최선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기법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대형 은행의 다양한 영업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반영

가. 개요

□ Basel II의 구성요소

- Basel II는 기존의 협약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및 시장 규율(Pillar III)을 추가한 총 3개 부문(pillars)로 구성되어 있음 :
 - 첫째, 최저자기자본규제(minimum capital requirement) : 신용(credit), 시장 및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를 감안한 위험가중 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적립
 - 둘째, 감독당국의 점검(prudential supervisory review) :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평가(새로 추가된 사항)
 - 셋째,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 :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새로 추가된 사항)

나. 주요 내용

□ 최저자기자본규제

- 최소 리스크 대비 자기자본 적립률은 8%로 기존 바젤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율과 같으나 리스크 산정 방법이 세분화됨

(1) 신용리스크 산정 방법

- 신용 리스크 산정 방식으로 표준방식(Standard Approach), 기

초 내부등급방식(Foundation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고급 내부등급방식(Advanced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등의 3가지 방법을 제시

- 각 금융기업의 사업 활동 발달 단계와 해당국의 금융 시장 인프라 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이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함

○ 표준방식(Standard Approach)

- 기업, 국가, 은행 등의 여신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최저 20-최고 150%)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 방식임

○ 내부 등급방식

- 내부등급방식은 은행 자체의 내부 신용등급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위험가중치 및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데 표준방식과는 달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함
- 내부등급방식은 기초내부등급방식(Foundation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과 고급내부등급방식(Advanced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으로 구분되고 있음
- 기초 내부등급방식은 차주의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 그로인한 신용 상실률, 만기 등의 리스크 요소 가운데 부도확률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위험가중 자산을 산정하는 방식

- 고급내부등급방식은 부도확률 뿐 아니라 그 외 리스크 요소도 은행 자체의 측정치 사용하는 방식인데 고급내부등급방식은 기초내부등급방식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음

(2) 운영리스크 산정 방법

-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한 리스크로 신협약안에 새로이 추가된 요소임
- 신바젤 협약은 운영리스크의 측정방식으로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필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하는 기본지표방식, 표준방식, 은행의 내부모형에 기초한 고급측정방식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용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각 은행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감독당국의 점검

- 신협약안이 내부모형 등 은행의 재량을 대폭 허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자본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시장 규율

- 시장규율은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 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최저 자기자본규제 및 감독당국의 점검을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협약 시행에 따른 영향 및 파급 효과

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및 전세계 은행제도에 막대한 영향 미칠 전망

- 바젤위원회는 신탁약 도입이 자기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신탁약이 도입되면 유럽 및 전 세계 은행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프랑스 은행계가 바젤Ⅱ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음

(1) 은행간 거래에 자기자본 요구 가중

-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신용등급이 극히 높은(AAA-AA)은행에만 위험가중치 20%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에는 등급에 따라 47%-368% 까지 차등적 비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2) 노출된 위험 가중치에 따른 자기자본 요구

- 노출된 위험가중치의 차이로 은행의 신용공여 대상에 따라 자기 자본 요구가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과 소매 여신,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신용공여 은

행은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자기자본 요구가 완화 될 것인 반면 대기업이나 개도국 위주의 신용공여 은행은 위험가중치 상승으로 인한 자기자본 요구 상승으로 신용등급 측정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신 협정은 개도국 대출 비중이 큰 프랑스은행보다 retail 비율이 큰 영국계 은행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심층 구조조정 촉발

- 규모가 작은 은행은 사실상 신 바젤협약이 제공하는 자기자본 절약 조치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뿐 더러 첨단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경제적, 인력적 여력이 작는데다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임

(4) 위험가중치에 따른 신용공여 구조 변화

- 기업과 개도국들이 장기 융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유럽에서는 신 협약의 시행에 앞서 신용 시장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2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소매여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1995년 이후 연간 8%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매여신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독일과 영국, 스페인에서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2년 전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다수 국가에서는 기업 대출이 둔화되고 1997년 금융위기 이래 개도국에 대한 대출도 대폭 감소하고 있음

(5) 경기변동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

- 경기하강 국면에서 은행 수익성의 하락과 동시에 그에 따른 리스크 증대로 은행들은 바젤 협약을 충족키 위해 신용공여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credit crunch) 경기 하락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재함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럽 은행들이 경기하강 국면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탁정의 자기자본 규정의 쇼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나. 유럽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신바젤 협약 결국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신 바젤 협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유럽 금융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음
- 주택담보 대출시 표준방식에서 위험가중치가 50%에서 35%로 인하(자기자본 요구의 30% 감소에 해당)
- 내부등급방식을 채택하는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요구가 평균 55% 감소하기 때문에 소매여신시 자기자본 요구가 평균 1/3 감소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신용공여 리스크가 크며 위험가중치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바젤 협약은 사실상 중소기업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는 한편 소기업을 소매 고객으로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욱 낮추어주고 있음
 - 이는 바젤Ⅱ안이 처음 마련되어 논의되었을 때 독일은행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결과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임
-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본 측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춘 것이 의아스러울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젤Ⅱ에서 가중치를 낮추어준 것임
 - 은행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상쇄되는 셈
 -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높지만, 반면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소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 요구가 낮은 것임
 - 중소기업 거래 경험이 많은 은행들은 건전한 고객 선정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고 예상되는 손실을 이윤으로 커버할 수 있음

3. 중소기업의 대응책

□ 신규정에 따라 신용평가가 높은 기업에게 유리

- 신 바젤협약은 은행의 자체적 내부등급제도에 의해 산정된 채무자의 신용도와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능성(probability of default)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 규정은 신용 평가가 높은 기업에게 유리함
 - 반면, 현행 협정(바젤협약 I)의 자기자본 규정은 채무자의 채무지불도(신용평가도, rating)와는 상관없이 8%의 일정비율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
- 신협약에서는 신용평가도 BB+까지는 현행 규정보다 위험가중치에 따른 자기자본 보유 요구가 훨씬 낮거나 유사한데 반해 BB-CCC 사이는 대폭 상승하여 불리해졌음
 - 예를 들면 신용도가 AAA인 차주에 비해 CCC인 차주에 대해 요구되는 자기자본은 25배가 넘음(AAA의 위험가중치는 15%인 반면 CCC는 380%)
- 은행이 상품가(신용 대출 종류를 의미)를 계산할 때 차주의 신용평가도는 자기자본비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리스크 프리미엄(표준 리스크비용)에도 영향을 미침
 - 신용평가도가 높은 차주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극히 낮지만(예를 들어 0.02%) 신용평가도가 B나 그 이하 수준의 차주에게는 기본 금리의 5%이상이 추가됨

□ 중소기업 신용평가 제고 방안

- 이미 유럽에서는 수년 전부터 대규모 은행은 물론 일부 규모가 작은 은행도 차주의 채무지불능력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바젤Ⅱ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적용할 예정
- 따라서 대출금리계산에 들어가는 자기자본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좋은 내부등급을 얻도록 노력하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해 유럽 전문가(Ernst & Young 소속 Risk Management)들이 제안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평가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1) 신용평가 향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은 바젤Ⅱ 도입 전에 신용평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 2)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레이팅(rating; 신용평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키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3) 거래은행과 레이팅 협상에 대비하여 은행이 필요로 하는 기업 정보를 완벽히 준비하여 제공할 것
- 4) 기업의 자기자금 충당률은 은행이 내부등급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체자금 조달 비율을 높힐 것
- 5) 은행이 내부등급을 산정하는데 기업의 대조대차표상 주요 수치를 감안하지만 여타 기업의 경영 질과 취급 상품,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의 정보도 감안하고 이러한 정보 결여로 레이팅 (rating)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할 것

6) 은행과 레이팅 협상 때 은행이 레이팅 제고에 무엇을 요구하는 지 알기위한 피드백을 요청할 것

7) 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

8) 대출 금리는 기업이 은행에 제공하는 환불 확실성과 환불기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II. 독일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 실태 및 Basel II 대응전략

1. 독일 중소기업 개황

가. 중소기업 구분

□ 독일 중소기업연구소 (IfM-Bonn)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 정의

- 독일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고용인원 500명 미만, 연간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의 기업체를 의미

[독일 기업 분류]

기업규모	근로자 수	매출
소규모	~9 명	~백만유로
중규모	10~499명	백만유로~5천만유로
대규모	500명 이상	5천만유로 이상

(자료원 : IfM-Bonn)

□ 중소기업의 구성

- 독일 중소기업연구소 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수는 340만여개 기업
 - 전체 독일의 판매세 납부대상 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이며,
 - 기업 총 매출액의 42.2%를 생산하고 있고,
 - 독일 근로자의 69.7%를 고용하고 있는 등
- 독일의 고용창출,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독일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총 기업의 2/3(230만개) 정도가 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

[독일 중소기업의 각 산업별 비중]

서비스분야	도·소매/무역	건축	제조업	기타
56%	21%	9%	8%	6%

(자료원 : IfM-Bonn)

[근로자수로 본 중소기업 비중]

~4명	5~9명	10~49명	50명이상	밝히지 않음
65%	18%	11%	3%	3%

(자료원 : IfM-Bonn)

나. 독일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독일 중소기업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 독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공업, 무역,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약 340

만 개의 독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

- 전체 독일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9.7%를 차지하며, 전체 투자의 50%, 총 국민총생산의 50%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또한 독일 총 취업 인구의 2/3이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 교육생 80%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 2001년 후부터 경쟁력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일 중소기업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부터 국제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신 Basel II 협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2.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가. 독일 중소기업 구조조정 배경

□ 독일 중소기업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요인으로는 법적인 제한(21%), 국내 소비 감소(8%), 자금 확보수단 부족(8%), 인건비 상승(8%), 강성 노조(8%) 등이 성장장애 요인으로 꼽힘 (설문조사 결과)
- 국외요인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 9.11테러에 따른 불안정한

세계시장,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달러화 폭락 등이 성장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 내부적으로는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구권(EU 신가입국) 및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에 주력
 -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위험관리를 통한 Unsystematic Risk 및 Operational Risk의 관리 추진, 생산관리 개선을 통한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추진
- 독일 정부차원에서도 노동법 유연화, 근무시간 연장 및 각종 사회보장 세율 인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구조조정 실태

□ 생산기지 해외이전

- 독일 중소기업은 오래 전부터 세계화에 따른 외국기업의 독일시장 진출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 악화와 금융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출 조건 엄격화 등에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음
 - 대표적인 형태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임
- 최근 독일 중소기업협회(BVMW)가 9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생산기지 해외이전 지역으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은 동유럽이며 이중 폴란드와 체코가 가장 인기가 좋음

-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경쟁력강화와 생산비용절감 효과임

-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 독일에서 멀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점점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적인 상품수출 보다는 협력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독일의 섬유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의 생산단가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을 실행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특수 섬유, 기능성 섬유 등 첨단기술 섬유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기지는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음

□ R&D 활성화

○ 독일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자체적인 연구개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총 340만 기업 중 약 35,000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들과 연구소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

○ 정부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협력체를 이루어 연구소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Inno Regio, ZUTECH(Zukunftstechnologien fuer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등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혁신능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

□ 벤처 캐피탈에 배타적이던 중소기업의 의식변화

- 독일은 상속세 등 조세적인 부담이 큰 나라로,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자본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은행대출로 기업을 운영하여 왔음
 - 독일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국제적 비교로 보면 낮은 편임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주 원인을 독일 기업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가족기업으로(Familienunternehmen) 타인의 자본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타인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임
- 그러나, 글로벌화와 함께 은행대출 조건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대출 여부가 결정되기에 이르자, 많은 독일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었음
-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며 아울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점점 많은 중소기업들은 벤처 자본, 특히 영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메자닌형 자금 조달(Mezzanine-financing) 방식 등 간접금융방법을 취하고 있음

3. Basel II에 대한 독일 중소기업들의 대응전략

가. Europressdienst 설문조사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독일 설문 조사 기관 Europressdienst는 지난 '04년 9월에 3,600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바젤협약 실시에 따른 정보현황, 준비실태 및 기대 관련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82.6%가 중소기업이었음

☐ 신 바젤 협약 도입에 대한 충분한 대처는 업체 경쟁력 향상의 계기 마련

- 응답자의 46.7%가 은행의 새로운 대출시스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프로세스 개선 및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인식
- 신 바젤 협약 시행에 따라 업체들은 "Investor relation" 뿐만 아니라 "Creditor relation"의 관리가 강조되며, 대출 결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 경영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업체 대출경쟁력 향상 요구됨

☐ 구체적인 정보 및 대응방안 미흡하나, 2년 전보다 향상된 수준

- 설문조사 대상 기업 61.7%가 신 바젤 협약 도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이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 대응방안 마련 등은 미진한 상태임
- 제조업 종사기업이 신 바젤 협약 시행에 대해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업, 무역업임

- 건설 및 수공업의 경우 준비가 미흡하며 이런 경향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업 내 바젤 협약 시행 대비 책임자 지정

- 조사대상 기업의 91%가 현재 신 바젤 협약 시행 대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9%는 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40%가 은행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음
- 바젤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기업의 53.9%는 한 명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37.1%는 몇 명으로 구성된 팀이 담당하고 있음
 - 바젤 책임자가 한명인 경우 67.4%가 경영자로, 주 원인은 기업을 대표하여 은행과 대출관련 협상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책임자라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임
 - 27.8%는 회계책임자이며 나머지는 다른 부서의 책임자로 조사됨

□ 2007년 Basel II 협약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응

- 한편 DZ Bank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 중 약 70%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약 10%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머지 약 17%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중 Basel II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높은 부채비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년 총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음

나. 독일 중소기업은행 설문조사에 따른 대응전략

독일 KfW 중소기업은행이 4,7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용도 강화를 위한 자본증대 등 신 바젤 협약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기업들의 신용도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 기업평가 소프트웨어 구입하여 평가 실시
- 온라인의 기업평가테스트 사용
- 은행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사용
- 정기적인 시장 및 경쟁 현황 분석
- 장기적인 기업전략 구축
- 자본비율 증대
-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 (벤처 캐피탈, 메자닌형 자금조달)
-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작성부서 개선
- 기업 구조 및 작업경과 개선
- 컨트롤시스템 도입 또는 개선
- 회계부서 설립 또는 개선
-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 (벤처 캐피탈, 메자닌형 자금조달, 팩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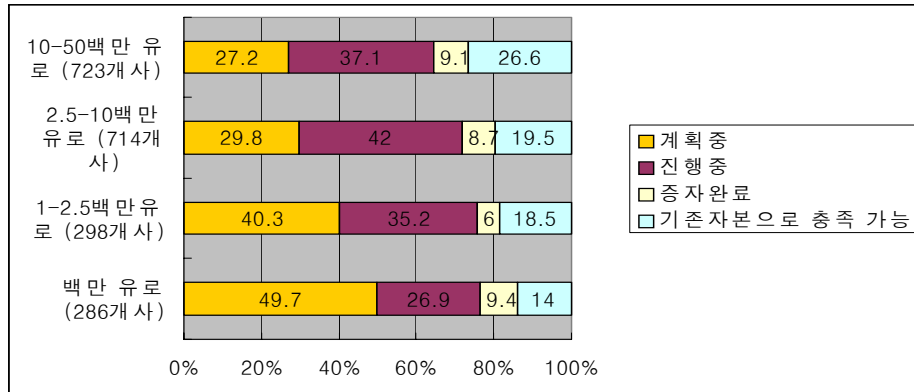
□ 기업 증자 준비

- 독일 기업의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즉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증자로 자본조달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백만유로 미만인 기업 중 49.7%가 증자 준비를 계획 중이었던 반면, 매출규모가 10-50백만 유로인 기업 중 27.2%만 증자 준비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기업의 증자 준비 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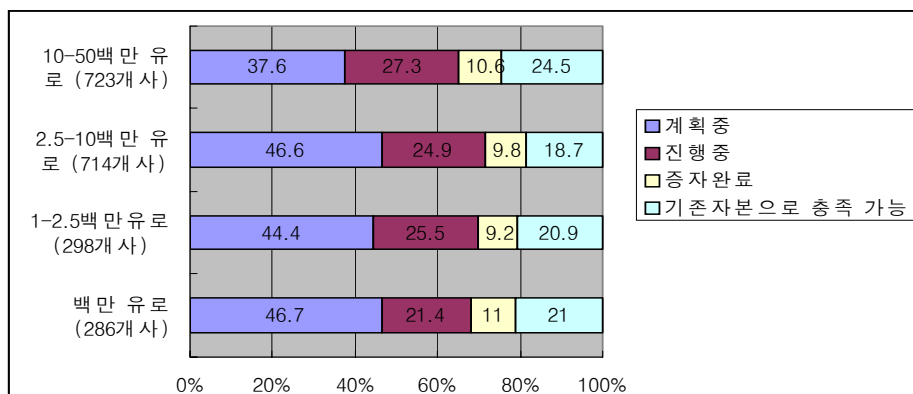
□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

○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이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

- 매출이 백만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의 46.7%가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에 있으며 이중 11%는 이미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를 이미 완료
- 반면, 매출규모가 가장 많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37.6%만이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할 계획에 있었으며, 이는 기존 보유 자본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4 그룹 중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 준비 상태]

(단위: %)



□ 정기적인 시장 및 경쟁 현황 분석

○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시장조사 및 경쟁 현황 분석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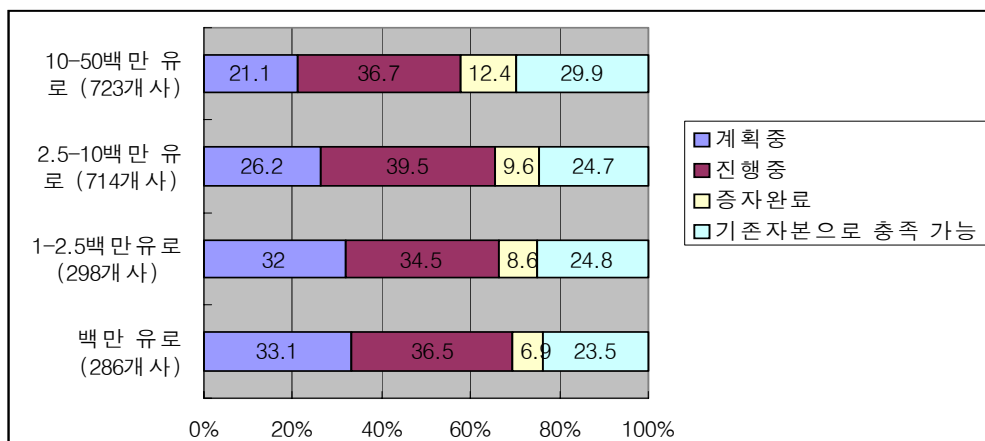
- 매출규모가 백만 유로 미만인 기업 중 33.1%이 시장조사 및 경쟁 현황 분석 계획이 있었음

- 한편, 매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미 이런 조사계획을 완료한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음

· 매출규모가 제일 큰 기업들의 29.9%는 이미 완료한 상태였던 반면, 매출규모가 제일 작은 기업들 중 23.5%만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기업의 시장조사 및 경쟁 현황 분석 계획 실행 비중]

(단위: %)



Ⅲ.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의 시사점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황

□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계속되는 생산성 하락과 구조조정 미진 등에 따른 비효율성 누적, R&D 투자 부진, 자금 및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임
 - 신바젤협약 발효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더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

-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자금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R&D 환경 개선,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 있음
 - 일본의 경우, 경제침체 속에서도 체질을 개선한 기업의 노력, 고용창출, 연구개발 투자,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음

나. 대응방안

□ 신 바젤 협약 시행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정책적 배려

- 신 바젤 협약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은행 및 금융기관이 정부정책, 은행의 대처방법 및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유도해야

- 동 협약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의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기업 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중소기업의 철저한 신용 관리가 필요함

- 금융거래, 회계정보 공시 등 신용관련 사안을 투명하게 관리
- 이외 시장현황, 경쟁력, 판매, 관리, 위험도 및 경영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 관리 필요

□ 우리 중소기업 신용도 및 자기자본비율 개선할 필요

- 우리 중소기업은 은행차입 외의 자금 조달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신용도 및 자기자본비율 개선이 필수

- 방만한 차입경영은 재무구조 악화,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부실의 원인이 됨으로 한국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모색이 필요

- 기업의 신용도 및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팩토링제도

(factoring), 시설대여제도(leasing) 및 메자닌형 자금조달(Mezzanine-financing) 등 의 간접금융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중요

- 기업의 핵심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의 비용절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비율 및 자금 유동성 강화
- 신 바젤 협약 도입에 대한 충분한 대처는 업체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Investor relation" 뿐만 아니라 "Creditor relation"의 관리가 필요함
 - 대출 결정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 경영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면 업체 대출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영 개선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효율적인 경영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 효율적인 경영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며 은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자금조달 방법 다변화를 통하여 은행 부채비율의 감소를 추진해야 함
- BaselⅡ 협약시행에 따라 은행은 자체 리스크측정방법을 적용하고 대출관행이 담보중심에서 신용평가 중심으로 바뀌어 외부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외부평가(External Rating) 및 기업 부도율, 손실률 등을 감안한 은행 자체적인 내부평가(Internal Rating)결과에 따라 대출자금 규모 및 대출 이자율 등이 결정되기 때문임

- 회계·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기록·관리·공시하는 등의 기업운영 프로세서 개선을 통하여 높은 신용평가 획득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자금조달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권 전체의 위기확산 등을 방지

-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정부, 기업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권 및 기업 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사전에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Basel II 협약 시행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KOTRA 발간자료목록 (2003-2005)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3-01	2003년 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1
03-02	세계시장 개방추이변화의 시사점및대응방안	“
03-03	2003년 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2
03-04	2003년 중국 경제 뉴트랜드	2003.3
03-05	2003년 3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
03-06	2003년 4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4
03-07	이라크전후 복구사업 진출방안 및 KOTRA 지원대책	“
03-08	2003년 5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5
03-09	2003년 6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6
03-10	2003년 하반기 수출전망	“
03-11	중국시장에서의 한·대·일 경합동향분석	“
03-12	이라크전후 중동시장진출 종합대책	“
03-13	7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7
03-14	월드컵개최후 국가이미지	2003.6
03-15	WTO 분쟁해결 우리의대응방안	2003.7
03-16	주요국 서비스분야 비관세 장벽	“
03-17	DDA 협상개요	“
03-18	POST-SARS-수출전망	“
03-19	2003 수입규제 동향	2003.7
03-20	EU 수입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통상	2003.7
03-21	국민소득2만불달성에관한 주제국전략 및 시사점	2003.8
03-22	8월중 해외시장수요전망	“
03-23	멕시코 자동차수입시장개방현안과대책	2003.9
03-24	9월중 해외시장 전망	“
03-25	WTO유통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책	2003.10

03-26	10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
03-27	FTA 체결지연으로 수출기업경쟁력불리	“
03-28	1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11
03-29	1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12
03-30	브랜드이미지조사	“
03-31	주요국환경규제현황 및 대응방안	“
03-32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4년도 수출전망	“
03-33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안 Zara와 Marks & Spencer 사의 사례에서 배운다	2003.12
03-34	홈센터 외국유통기업의 중국진출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03.12
03-35	중남미 국별 FTA추진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추진가능성	2003.12
03-36	수출20대국 한국산 일류상품 경쟁현황	2003.12
03-37	2003년 대한수입규제 동향 및 2004년 전망	2003.12
03-38	<WTO DDA>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 동향	2003.12
04-01	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
04-01	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2
04-03	인도, 태국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4.2
04-04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2004.2
04-05	2004년 3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3
04-0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주요국 현황 및 대응사례	2004.2
04-07	수출 엘도라도 Brics를 잡아라	2004.3
04-08	쿼터제 폐지 후 대미 수출 전망	2004.3
04-09	2004년 4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4
04-10	ASEAN 지역 FTA 확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04.3
04-11	섬유 수입쿼터 폐지에 따른 주요 섬유수출국 대응방안	2004.4
04-12	일본-멕시코 FTA 체결 후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상품별 영향분석	2004.4
04-13	5월중 해외시장수요 전망	2004.5
04-14	미국의 對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이후 시장 환경 및 진출방안	2004.4

04-15	WTO/DDA 비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리스트 분석	2004.5
04-16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현황 및 전망	2004.5
04-17	6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6
04-18	WTO/DDA 반덤핑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4.6
04-19	러시아 개발 프로젝트 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04.6
04-20	EU 수입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동향	2004.6
04-21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동향	2004.6
04-22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2004.6
04-23	대만을 기점으로 한 일본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동향	2004.6
04-24	2004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분석	2004.6
04-25	중국의 CCC 인증 전면 실행현황 및 우리의 대중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04.6
04-26	2004 하반기 해외시장 수요 전망	2004.6
04-27	일본시장에서의 한.중.미 경합동향 분석	2004.6
04-28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4.6
04-29	7월중 해외시장 수요 전망	2004.7
04-30	수출2000억불시대 국가 이미지 현황 및 시사점	2004.7
04-31	주요국의 對韓 섬유쿼터 해제 품목 리스트 - 미국, EU, 캐나다의 對韓 섬유쿼터 해제 품목 -	2004.8
04-32	선진국 신규 환경규제와 우리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4.9
04-33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2004.9
04-34	8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7
04-35	9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8
04-36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동향과 대응 방안	2004.9
04-37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주요국 동향	2004.10
04-38	섬유 교역자유화 이후 미.중 섬유 교역 전망	2004.11
04-39	해외 윤리경영 사례	2004.11
04-40	7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7
04-41	8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8

04-42	9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9
04-43	10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0
04-44	1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1
04-45	1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2
04-46	한국문화 및 문화상품이미지조사	2004.11
04-47	2005년도 수출전망	2004.12
04-48	중국 서부 대개발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2004.12
04-49	중동 최대 수출시장, 이란을 잡아라	2004.12
04-50	중남미 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동향과 우리의 진출현황	2004.11
04-51	한.중.일 3국의 에너지확보전략 비교 및 우리의 대응방안	2004.12
04-52	EU 확대 후 6개월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2004.11
04-53	북미 실버시장현황 및 진출방안	2004.11
04-54	중국에서의 지적보호 매뉴얼	2004.12
04-55	중국진출기업 사례분석	2004.12
04-56	세계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상품 차별사례	2004.12
04-57	쿄토의정서 발효대비 선진국 대응방향	2004.12
04-58	중국의 출판업시장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2004.12
04-59	아세안의 VIP시장을 주목하라	2004.12
04-60	2004년도 대한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2004.12
04-61	ASEAN 비관세장벽 현황조사	2004.12
05-001	위안화 평가절상, 초읽기에 들어갔나	2005.1
05-002	주요시장의 수입급증품목과 한국상품의 경쟁동향	2005.1
05-003	일본을 통해 본 우리의 환경 대책	2005.2
05-004	아프리카 무역 Trend변화와 대처방안	2005.2
05-005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1
05-006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2

05-007	중국의 FDI 확대와 드러나는 비즈니스 리스크	2005.2
05-008	중국제품의 시장잠식과 EU주요국 섬유, 의류업계 피해 및 대응 동향	2005.3
05-009	해외시장 수요전망 3월	2005.3
05-010	칠레시장에서 한-칠레 FTA 체결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2005.3
05-011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가고 미주개발은행(IDB)	2005.3

□ 현안리포트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5-001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 여건 변화 전망	2005.1
05-002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2005.2
05-003	美 05/ 06 예산 연두교서 무엇을 담나?	2005.2
05-004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논의 동향 및 전망	2005.2
05-005	동남아 쓰나미/ 지진 복구 추진현황 모니터링	2005.3
05-006	중국의 대중동 경제협력강화와 대응방안	2005.3
05-007	WTO 설립 이후 10년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분석	2005.3
05-008	신 바젤(Basel II) 협약 시행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및 대응방안	2005.3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부장
■ 뮌헨무역관	이민호 과장
■ 베를린무역관	박은아 과장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김연재 과장
■ 해외조사팀	김한나 책임연구원

신 바젤(Basel II) 협약 시행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및 대응방안

발행인 : 채 훈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